

경기 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사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 건강 1 호 탑승기

지난 6월24일 맑게 개인 전형적인 여름 날씨에 기자는 건강검진차량인 건강 1 호를 따라서 검사 현장을 찾았다.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벌써 한 여름을 방불케 한다.

오전 8시30분 협회를 출발한 건강 1 호는 경기도 의정부시를 지나 검사 장소인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부화장에 도착했다.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들과 산야가 무척이나 상쾌한 기분을 준다.

검사장소에 도착하니 먼저 와있던 경기지부의 배정구 사업과장, 정상준 검사

소장, 제 6 지구 의료보험조합의 급여과장 서병관씨, 급여계장 정규훈씨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다.

경기 제 6 지구 의료보험조합은 2 개시 7 개군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본부는 의정부시에 두고 있다한다.

이렇게 넓은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무척 어려움이 많다고 서과장은 말하면서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개개인의 건강을 돌 봄으로써 각 사업장및 자기자신의 생산의욕과 그에 따른 가정의 행복을 얻을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진료비가 얹가라는데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검사 수수료가 너무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집단검사를 하면 정확한 검사가 안되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검진반원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새삼 인식을 한듯 그런 우려를 할필요가 없겠다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검사에 응했다.

포천군 이동 교리에 사는 올해 28세인 가정주부라는 김만순씨도 처음 이런 검사를 받는다니면서 앞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며 검사결과에 만약 이상소견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이상이 있을까봐 벌써부터 겁이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씨는 점점 더워져 심전도 검사를 받는 수검자들은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땀을 흘리고, 검진반원들 역시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말은바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을때 검진사업의 앞날은 매우 밝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좀더 시설이좋은 검진차량이 나와서 불편없는 검사를 할수 있도록 기대하기도 했다.

검사 도중에 마침 조동인 조합 대표이사께서 검사장소에 도착했다.

눈매가 매우 인자하고 자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조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조동인 대표이사(中)와 사업논의 광경



건협간부와 6지구조합 간부의 송회

더구나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토록 하는 것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매우 높은 공감대를 사고 있지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시킨다면 머지않은 시일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도 힘이 있는 그의 말을 들을때 과연 제6지구 조합은 조 대표이사를 위시해서 상하간의 조화가 멋지게 이루어진 조합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기자는 돌아오는 버스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

〈글 : 이영강〉